

## “정치 철새 막기 명확한 기준 세워야”

의장 불신임 대립하던 민주당 전남 도의원들 경쟁자 견제엔 한목소리  
“패널티 없이 재입당 뎀 불이익 우려”... 이해관계 따라 이합집산 ‘눈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의 입당과 복당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매년 지방선거 때만 되면 ‘철새 정치인’들의 입당·복당 문제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갈등을 반복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중앙당의 합리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51명 전원이 ‘탈당 인사’의 복당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전남도당과 중앙당에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인사들이 속속 당에 복귀하는 움직임이 보여 선거 경선시 패널티 부과 등 철새 정치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집단 건의서를 낸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입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정치 철새들로 인해 지방 정치권이 분란을 겪는 폐습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에 건의문을 낸 전남도의원 가운데 탈당 전력자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당 밖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사전 물밑 선거전이 본격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자당 소속 도의회의장 불신임을 놓고 패를 나누어 싸우던 민주당 도의원들이 ‘합리적인 복당 기준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는 점에서 건의문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장석 전남도의원(의회 원내대표)을 비롯한 51명의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2일 “중앙당은 합리적인 복당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문을 중앙당과 도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전남 정치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당을 버리고 떠난 정치인들에게 아무런 패널티 없이 재입당시키려는 (당의)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당이 어려운 시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가차 없이 당을 떠

나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려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버리고 떠난 정치인들에게 단지 개인 친분이나 대선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량을 베풀다면, 조직을 위해 헌신한 당원들의 허탈감과 반발심을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당 인사의 당 복귀시 합당한 패널티가 부과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도의원들의 이번 ‘집단 건의’를 두고는 우선, 선거철만 되면 돌아와 지역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드는 철새 정치인을 이제는 속내나자는 분위기가 지역 정치권에서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명현관 해남군수가 3일 당의 요구에 따라 특별 복당 형식으로 민주당에 복귀, 차기 선거 경선에서 패널티를 부과받지 않게 된 점도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명 군수의 ‘무혈 복귀’ 가능성을 본 해남지역 군의원들이 최근 앞다퉀 민주당 전남도당에 복

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도 현역 도의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이 철새 정치인 복귀를 막기는커녕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조직 강화를 위해 오히려 탈당자들을 반기고 있다. 복당을 남발하고 있다”는 격한 발언도 새어 나온다.

반면 도의원들의 이번 건의서 제출이 “결코로는 철새 정치인 퇴출을 건의하지만, 실제로는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2면으로 계속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입춘 나비의 봄 재촉 절가상 입춘인 3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에서 호랑나비와 배추흰나비들이 힘찬 날갯짓으로 봄을 재촉하고 있다. /최혜만 기자choi@kwangju.co.kr

## 전남서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첫 검출

나주 거주 시리아 국적 20대  
광주·전남 확산세는 ‘주춤’

전남에서 지난 1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남성이 영국발(變)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남에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첫 사례다. 전남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현재 나주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 치료 중이지만, 혹시 모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전남 거주 시리아인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는 3월 4일 기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스 누적 건수는 총 39건으로 이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보다 1.5~1.7배가량 세고, 백신에 제한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방역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이후 시리아 국적의 전남 609번 확진자(20대 남성)에게서 영국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전남도에 통보했다.

나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역 폐차장을 돌며 돈이 될 만한 부품을 사들여 수출하는 일을 해왔다. 지난 1월 10일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나주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현재까지 증세 및 치료 과

정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은 아내(전남 610번)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달 17일과 26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딸(전남 663번)과 아들(전남 724번)도 같은 장소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전남 609번을 제외한 가족 3명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첫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다른 시리아 국적자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3일 입국하고 다음날인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유전자검사 결과 지난달 27일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김해시와 나

주시 시리아인 집단 감염 사례들이 친인척 관계임을 확인하고,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4명(전남 609번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임의로 검사한 결과 지난 1일 영국발 변이가 확인된 것이다.

전남 609번의 경우 지난해 12월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 후 김해시에서 자가 격리 중인 시리아 국적의 매형은 만나고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1월 10일 전남 609번 가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이들의 친족(다른 일가족) 4명( 613, 616-618번) 등 모두 8명의 시리아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613번 가족 4명은 퇴원했고, 당시 함께 검사를 받은 나머지 시리아인 3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2일 신규 확진자가 6명 발생했고 이날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759명이다. 광주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848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AI 데이터센터 구축 오늘 광주서 착수식

NHN, 2100억 원 투자 협약

인공지능(AI) 시대의 서막을 열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광주에서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4일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협약 및 착수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축사,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표, 센터 운영을 맡을 NHN의 비전 소개 등이 이어진다. NHN은 센터 건립에 21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도 광주시,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과 체결한다. 착수식 뒤에는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도 열린다.

데이터센터는 AI 집적 단지가 조성 중인 광주 첨단 3지구에 3000억 원을 들여 2023년 조성될 예정이다. 컴퓨팅 연산 능력 88.5PF(페타플롭스), 저장 용량 107PB(페타바이트)를 구축해 스타트업, 중소·중견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88.5 PF는 1초에 8경8500조번의 부동(浮動)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시스템인 한국 과학기술 정보연구원의 누리온 5호기의 25.7 페타플롭스(세계 17위)보다 뛰어난 세계 10위 수준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육성장은 “데이터는 AI를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로,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제공하면서 인공지능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비즈니스 생태계가 광주를 중심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왜 우리만 안주나요? 자영업자들 하소연 ▶6면

KIA 최형우 올해는 타점왕 도전 ▶18면



신 팔도명물 - 인제 용대태대 ▶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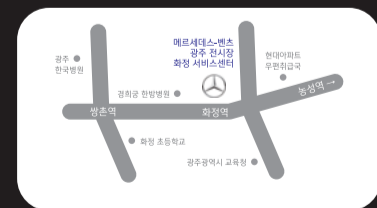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황금 서비스센터 (062)374-3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마해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명대로 516(수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원대로 603(백갈 20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평로42번 520(수원동)

장부 보유 차량 및 등급  
E 220 4 AMG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9단,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9단,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